

# 2020 경기예술교육활동가 전문연수과정 <코끼리를 데이터에 넣는 방법> 해커톤

## 심의 총평

이번 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참여자간 거리감과 현장성이 핵심인 해커톤의 장점이 배제된 '온라인' 해커톤이었기에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는 바, 목표하는 바가 뚜렷한 지원자들의 활동을 통해 해커톤이 가능함을 확인한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선 이를 가능케 한 지원자와 운영 주체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온라인' 해커톤이라는 낯선 형태 때문에 2020년 온라인 기반 사업이었음에도 실질신청 건수가 사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추후 보다 명확한 사업소개와 방향성 및 참여분야 제시를 통해 참여규모와 지원확대를 기대합니다.

심사의 경우 창의성과 완성도 등에 기반한 판단도 중요했지만, 멘토링 과정을 거치며 뚜렷한 목표설정과 견고한 구조, 그리고 이후 지원과정을 거쳐 현실화 및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 팀 선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공적 자금이 적용되는 행사인 만큼 현실화와 행사 취지인 교육의 관점에 집중하여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지원자가 진지함과 열정을 드러내었고 참여를 통한 명확한 변화를 생성해내는 것을 과정을 함께 하며 보았음에도 차등을 전제로 한 심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멘토 모두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기존의 다수의 사례와 함께 공통적으로 특정 장르만의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분야 또는 학제간 교류가 전제되는 융합적인 면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지원자 모집, 지원자간 매칭과 교류, 실행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기적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해커톤을 통해 정리된 기획과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지원과 향후 기회제공을 위한 지속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역시 당부 말씀 드립니다.